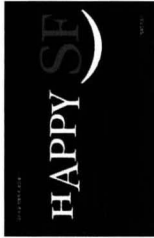


너무나 SF적인 2004년  
과학, SF, 판타지 문학

“SF는 SFX가 아니다.” 상식적인 이 말이 우리나라에선 그다지 상식적이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SF(science fiction, 과학소설)와 SFX(special effects, 특수 효과)에 큰 차이를 두지 않거나 혹은 차이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굳이 이유를 따지자면 SF문학이 자리를 잡기 전에 SF영화가 소개되면서 SF영화에서 자주 사용되는 SFX가 오히려 더 SF적인 것으로 여겨진 탓이다. 장르문학인 SF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는 여간 당혹스러운 게 아니다.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인 구광본 씨(주간)와 번역가이자 SF기획자인 김상훈 씨, 그리고 팬덤(fandom : 특정한 인물이나 분야

를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또는 그러한 문화현상)이자 행복한책읽기 대표인 임형욱 씨가 편집동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HAPPY SF>는 이러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무지를 불식시키고, 나아가 위기를 맞고 있는 주류문학의 대안으로서 장르문학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된 잡지다. 비록 무크지라는 형식을 띠기는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나온 장르문학 매체라는 점 때문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창간호 주제는 '왜 SF인가'다. 주류문학의 대안으로서 SF를 장르문학의 목소리로 다루었다. 그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현대 SF 대표작가 테드 창을 소

<HAPPY SF> 편집동인 구광본 임형욱 김상훈



개했다. 이 외에도 세계 영화의 주류가 된 SF 영화, 그리고 국내 창작 SF 등이 볼거리다. 임형욱 대표는 행복한책읽기의 'SF총서'를 통해 국내에 SF문학을 알려왔지만 총서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했다고 한다.

“팬덤의 지지를 받은 것에 비해 대중의 관심을 끄는 데는 실패한 거죠. 평론가나 언론인 등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넘기에도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층 전략적으로 SF를 확산시키기 위해 <HAPPY SF>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최근 <문학과 사회>(과라21) 등 주류문학 잡지에서 소설의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장르문학'을 다루곤 했지만 주류문학의 장르문학에 대한 편견은 뿌리 깊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나무>의 팬북 <나무2>에 실린 한 평론가의 글은 그 편견의 단면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평론가가 '베르베르의 <나무>가 공상과학소설과 다른 이유는 인간의 삶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는 요지의 글을 쓴 것이다. 네티즌 사이에서 난리가 났다. 특히 SF팬덤의 입장에서 '장미가 다른 식물과 달리 아름다운 이유는 꽃을 피우기 때문'이란 말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언젠가 문학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소설가 복거일 씨의 <비명을 찾아서>가 SF라고 하니까 다들 깜짝 놀라더군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주류문단에서는 SF는 장르가 아니라 하나의 기법으로밖에 취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광본 씨는 “<나무2>에서 평론가의 발언은 'SF는 현실과 단절된 것이다'는 우리 문단의 보편적 인식을 드러낸 것일 뿐, 흥분할 일도 아니다”며 “정녕 <나무>야말로 '공상과학소설 아닌가'라고 '몰상식'을 댔했다.”

1980년대 사회적 현상과 역사문제 등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했던 주류문학은 1990년대 들어 인간의 내면과 사생활로 그 영토를 좁혀가면서 급기야 쇠퇴 국면을 맞고 있다. 그것에 비해 SF는 미래 우주과학 등 기존 작가가 상상하지 못했던 사고의 지평을 열었다. 특히 어느 나라, 어느 시기보다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는 그야말로 'SF적'이라고 할 수 있다. <HAPPY SF> 편집위원들이 SF를 주류문학의 대안으로 내세우는 이유다.

SF의 중요성은 단지 문학에 그치지 않는다. 편집동인들은 아폴로11호가 달착륙을 했을 때 미국 CBS방송 앵커 월터 크롱카이트의 옆 해설자석에 앉은 사람이 다른 아닌 <A Space Odyssey>(1968)를 쓴 아서 클라크였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들은 “달 착륙은 이미 몇십 년 전에 그가 예언을 한 것이니 당연한 대우”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우주선을 쏘아올릴 때마다 저명한 SF 작가들이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창간호 좌담에서 안진수, 송경아가 지적하고 있듯이 SF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국가의 과학기술정책과 근본적인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일본, 미국, 중국과 같이 SF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정부가 앞장서 과학입국의 비전을 보여주고 실제로 정부의 인센티브를 통해 성공한 과학자들이 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한다. 이들 나라에서 SF작가는 예비과학자들에게 등대와 같은 존재로 성공한 과학자만큼이나 중요한 존재로 여겨진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딱하다. 과학자가 되겠다고 하면 부모가 먼저 말린다. 겉으로는 하얀 가운을 입고 있지만 속으로는 공돌이가 아니냐는 박탈감에 쌓여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 SF작가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읽을 만한 SF 작품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좋은 작품을 읽어봐야 좋은 작품을 쓸 텐데 좋은 작품을 구할 길이 없는 것이다. 답답한 마음에 팬덤이 직접 편집자가 되고 작가가 되고 번역가가 되기도 한다. '과학소설자대출판단'(과자단)이 대표적인 사례다. 임형욱 씨와 같은 경우도 출판사 사장이면서 동시에 팬덤이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다른 메이저 출판사 자회사 형태의 SF 출판사에 뒤지지 않는 이유다.

“출판사를 운영하는 제가 보기에 국내 SF 고정 독자는 2,000~3,000명 정도 됩니

다. 보잘 것 없는 숫자지만 출판사의 입장에서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충성도가 높아 특별히 문제가 있지 않다면 초판은 소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무> <다빈치 코드>와 같은 작품을 재미있게 읽는 잠재적 SF 독자까지 합치면 몇십만 명도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어떤 면에서 우리도 이제 '때'가 된 것이다. 앞서 말했듯 주류문학잡지에서 장르문학을 그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젊은 작가들 중심으로 SF가 시도되고 있다. 최근엔 한국 과학문화재단이 동아일보와 함께 1,500만 원을 내걸고 과학창작문예를 현상 공모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창간호 특집에서 테드 창이라는 걸출한 작가를 내세운 것도 그 때문입니다. 테드 창은 10년간 발표한 8편의 중편으로 휴고상, 네블러상, 존 캠벨 기념상, 스테이션상, 사이드와이드상, 로커스상 등등 과학소설계가 수여하는 거의 모든 상을 수상했습니다. 상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만큼 깊이를 가지고 있는 작품으로 국내 평론가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작품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단지 번역의 어려움이나 상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국내에 많이 소개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김상훈 씨는 “동속적인 작품에서 철학서에 가까운 SF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독자들이나 평론가들이 알아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HAPPY SF> 편집동인들은 총서와 무크지 이외에도 다양한 '전략'을 준비중에 있다. 마니아를 위한 SF전집이 테드 창을 시작으로 10월 말부터 출간되기 시작했고, <나무>와 <다 빈치 코드>처럼 SF적 요소가 강하지 않으면서도 재미있고 감동적인 책을 SF 타이틀을 달지 않고 출간할 생각이다. 또한 행복한책읽기 자체 공모를 통해 젊은 작가들을 발굴하고 작가로서 대접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처럼 차근차근 시스템을 만들어나간다면 멀지않아 정말 '행복한 SF 세상'이 올 것이라고 이들은 믿고 있다. **김민**

취재 | 신동섭 기자 · 사진 | 박신우 기자